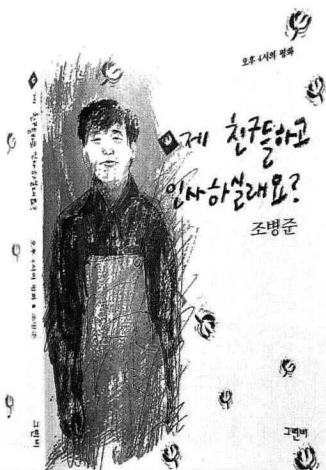


인도로 가는 길, 그 길을 안내하는 든든한 조연자



《제 친구들하고 인사하실래요? - 오후 4시의 평화》
조병준 지음 | 그린비 | 164쪽 | 값 6,800원



2주간의 휴가! 아무리 길어도 7일이 고작이었던 저에게 14일이란 두 배 이상의 여유를 의미합니다. 항상 자신이 가진 것을 쏟아놓아야 하는 방송 일. 10년 이상 그렇게 내놓기만 했던 내게 2주간의 휴가란 그야말로 ‘꿀맛’ 같은 휴식입니다. 마음껏 뮤지컬을 보며 소호를 돌아다닐 수 있는 뉴욕, 가는 곳마다 마치 영화 세트같이 아름다운 유럽, 사자가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아프리카까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아니 너무 가고 싶은 곳이 많아서 탈입니다.

물론 마음 속에 고이 모셔둔 곳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위해 또 새로운 평안을 위해 떠나는 인도가 그곳입니다. 강석경의 《세상의 별은 다, 라사에 뜬다》, 류시화의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등의 책을 차곡차곡 읽어온 제게 인도는 더할 나위 없이 유혹적인 땅입니다. 더러는 인도가 아주 더럽고 여행하기 불편한 곳이라고 하고 더러는 평생에 한 번은 꼭 가 볼 만한 곳으로 추천합니다. 다녀온 이들의 평가가 이처럼 극과 극을 달린다는 사실만으로도 매력 만점입니다.

다만 믿을 수 있고 정확한 안내자가 있어야 합니다. 미지의 땅이란 그만큼 선이해가 필요한 땅이라는 뜻이니까요. 인도에 정통한 안내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미지의 땅은 곧 기회의 땅으로 변합니다. 《제 친구들하고 인사하실래요?》를 쓴 조병준 씨는 그런 인도에 대한 믿음을 더해준 든든한 조연자였습니다. 그의 글은 캘커타 〈마더 테레사의 집〉에 기거하는 동안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파리에서 우수한 대학을 나와 유력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

만 지금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에는 생각으로 그 곳을 찾은 로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람의 아들, 도날드. 바닷가의 바위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받아주는 안토니오. 그러나 그 사람들 이야기 속에 인도의 일상과 인도인의 사고 방식에 관한 조연이 숨어 있습니다.

지은이는 인도여행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과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수용 시설의 척박함과 병 수발과 세탁과 청소, 병자들의 끊임없는 어리광과 응석을 받아내는 일 따위의 고된 봉사 활동에 관해 말합니다. 당연히 그의 글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털어놓지만 웬일인지 그 속에서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에게 얘기하는 듯한 가벼움이 전해져 옵니다.

어느 곳에 가서 어디에 머물며 무슨 유적을 돌아보고 오라는 얘기는 한 줄도 없지만, 꼭 이 책을 잡고 인도로 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여행은 명승지가 아니라 거기 깃들여 사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민**



황정민 KBS 아나운서

1971년생으로 1993년에 KBS 방송국에 입사하면서 TV,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꾸준히 활동했다. 2002년에는 자신만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집《짧은날을 부탁해》(마음산책)를 발간하면서 소탈한 아나운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현재 KBS FM 〈황정민의 FM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다.